

# 이야기지도안

## 교육목표

**제목** 신라를 사랑한 바다의 왕 장보고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목표** : 신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장보고의 용기에 대해 배운다.  
**주제** : 용기

**핵심어** 용기, 장보고, 궁복, 어부, 신라, 당나라, 청해진, 해적, 해상무역

**한국문화** **목표** : 신라, 당나라, 일본과의 해상무역에 관심을 가진다.  
**요소** : 신라, 당나라, 일본의 해상무역

**한국어** **목표** : 반대되는 말을 익혀 재미있게 표현해 본다.  
**단어** : 넓다-좁다, 크다-작다, 많다-적다  
**표현** : 넓은 바다-좁은 땅, 키가 크다-키가 작다,  
물이 많다-물이 적다.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신라를 사랑한 바다의 왕 장보고’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바다를 본 적 있나요? 대한민국은 동쪽, 서쪽, 남쪽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어부라고 해요. 그런데 신라에서는 어부였지만 꿈을 위해 넓은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가서 장군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왔어요. 바로 장보고예요. 어떤 분인지 만나 볼까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신라를 사랑한 바다의 왕 장보고’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신라시대 바닷가에 어부 가족이 살았어요. 어부에게는 씩씩한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궁복이라고 불렀어요. ‘궁복’은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궁복이는 활을 잘 쏘는 뿐만 아니라 바다 수영도 잘했어요.

마음씨도 착해 아버지를 종종 도왔어요. 배를 타고 멀리 나가 함께 고기를 잡았지요.

“아버지, 이 바다는 얼마나 넓은가요? 저기 바다 끝에 가면 무엇이 나오나요?”

호기심이 많은 궁복이는 바다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에게 끝도 없이 질문했어요.

“허허허, 바다는 아주 넓단다. 우리가 사는 땅보다도 넓지. 이 바다를 건너면 또 다른 나라가 나온단다.”

아버지는 궁금한 것이 많은 궁복이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는 이다음에 커서 활을 잘 쏘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배를 타고 먼 나라들을 오가며 장사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 되고 싶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궁복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어요. 하지만 걱정도 되었지요.

“그래. 네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신라에서는 어부 아들로 태어나면 평생 어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다.”

궁복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물었지요.

“다른 나라도 똑같나요?”

신라에서만 살아온 아버지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다른 법이 있을 거야.”

어느덧 세월이 흘러 궁복이는 어른이 되었어요. 키도 크고 몸집도 좋았지요. 활을 쏘고 말을 타고 창을 던지는 솜씨는 날로 더 훌륭해졌어요. 그럴수록 궁복이는 자신의 꿈을 꼭 이루고 싶었어요. 결국 궁복이는 어머니, 아버지께 신라를 떠나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아들을 먼 곳으로 보내는 게 걱정되었어요. 또 섭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궁복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지요.

궁복이는 친구와 함께 중국 당나라로 건너갔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당나라에 간 궁복이는 뛰어난 무술 솜씨로 정말 꿈꾸던 장군이 되었어요. 이름을 ‘장보고’라고 새로 지었지요. 장보고 장군은 부하들에게도 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보고가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도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가 보았지요. 그곳에는 신라 사람들이 힘겹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장보고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체 이 사람들을 왜 함부로 끌고 가는 거냐!”

장보고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당나라 남자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당나라 남자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마음이다! 하인으로 삼을 거야!”

장보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혼쭐을 내줬지요. 알고 보니 그 남자들은 당나라 해적들이었어요. 신라에 멋대로 쳐들어가 마을 사람들의 곡식과 물건들을 훔쳐 온 거지요. 그것도 모자라 신라 사람들까지 억지로 끌고 왔던 거예요. 장보고에게 혼난 해적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갔어요. 신라 사람들을 무사히 구한 장보고가 그제야 물었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대체 지금 신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신라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당나라 해적들은 아무 때나 마을로 쳐들어옵니다. 배를 타고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요.”

장보고는 그날로 당나라에 잡혀 온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어요. 그리고 당장 다시 신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요. 신라로 돌아가 신라 사람들을 꼭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여보게, 난 이제 신라로 돌아가네. 어떤 나라도 신라를 괴롭히지 못하게 바다를 지킬 거야.”

장보고의 말에 함께 당나라로 왔던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뜻이 그렇다면 나도 같이 가겠네.”



### 이야기 들려주기

신라로 돌아온 장보고는 곧바로 신라의 왕을 찾아갔어요. 장보고는 왕에게 바닷가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했어요.

마침 왕도 해적들이 바닷가에 나타나서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장보고에게 바다를 지키는 일을 맡겼어요.

결국 장보고는 신라에서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 되었어요.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장보고는 오늘날의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이라는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군사들이 머물도록 했어요. 그래서 해적이나 적군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지켰지요. 장보고는 바닷길을 안전하게 한 후에 중국의 당나라와 일본을 이어주는 무역도 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장보고 덕분에 신라 사람들은 마음 놓고 편히 잘살 수 있었답니다.



##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장보고의 어릴 때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궁복이지요. 궁복이는 장군이 되기 위해 신라를 떠나서 어느 나라로 갔나요?

네, 넓은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갔어요. 이때 ‘넓은’의 반대말은 ‘좁은’이에요. 그리고 ‘키가 크다.’의 반대말은 ‘키가 작다.’예요. 그럼, ‘물이 많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물이 적다.’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재미있게 반대말을 찾아보고 표현해 보아요.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신라로 왜 돌아왔나요?

그래요. 장보고는 당나라 해적들에게 끌려온 신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신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지요. 장보고는 청해진이라는 군사 기지를 만들어 해적을 막고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도 했어요. 지금은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해, 장보고가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5월 전라남도 완도에서 장보고와 관련된 축제도 한답니다. 장보고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신라를 사랑한 바다의 왕 장보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장보고는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신라에서 당나라로 떠나 장군이 되었어요. 하지만 당나라 해적들에게 끌려온 신라 사람들을 보고, 신라로 돌아와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장보고를 ‘바다의 왕’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